

전주·진안·부안 여행 '한 번에'

서울 출발 1박 2일 여행상품 'mymy travel 시즌3' 출시 마이산·전주한옥마을·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관광명소 방문

전주시가 완주·정읍·익산에 이어 진안·부안을 연계한 새로운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전주한옥마을과 진안 마이산,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3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춰 증가하고 있는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진안과 부안을 연계한 1박 2일 여행상품인 '2021 mymy travel 시즌3 전주·진안·부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이같이 도내 지자체와 연계한 여행상품을 출시한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

째다.

'2021 mymy travel 시즌3 전주·진안·부안'은 서울에서 출발해 첫째 날 진안과 전주에서 시간을 보낸 뒤 둘째 날 부안의 관광명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참여자들은 전북의 명산인 진안 마이산, 전주 수목원, 전주한옥마을,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소사 등을 찾게 되며 즐도만 갯벌생태공원에서는 수상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버스를 이용한 단체여행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예약은 쿠팡을 비롯한 여행 예약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1 mymy travel' 여행상품을 시즌별로 기획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전주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완주 소양고택을 둘러 정읍 내장산과 쌍화차거리를 둘러보는 여행상품을, 지난 9월에는 익산 내바위 성당과 미륵사지 미디어아트쇼, 한옥마을, 전주수목원, 팔복예술공장 등을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출시·운영했다.

/김윤상 기자

객리단길 걷고 싶은 거리 문화행사 열린다

전주시, 13·20일 옥토주차장 옆 190m 구간서 문화공연·플리마켓 등 진행

전주 객리단길이 댄스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청년 창업가들의 플리마켓으로 채워진다.

전주시는 다가오는 주말인 13일과 20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고사동 옥토주차장 옆(전주객사2길 47~전주객사2길 73) 190m 구간에서 '객리단길 걷고 싶은 거리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운행을 통제하고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걷고 싶은 거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 문화기획단과 상인, 주민들이 함께 △문화공연 △플리마켓 △플레이존·휴식존 △트리아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주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문화공연의 경우 뮤지컬 공연부터 댄스 퍼포먼스, 버스킹 등이 다



채롭게 펼쳐지며, 청년창업가들은 우드데이블 35개를 길거리에 깔고 전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들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연다. 또 간단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존과 휴식존, 캐리커처 체험부스,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는 트리아트 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행사 현장 양쪽 끝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오전 10시부터 교통을 통제하고, 진입로 양쪽에는 손세정제와 위생관리 물품도 비치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정부·지자체 보조금 사업 원스톱 확인 '보조금24'

전주시, 내달 7일부터 전국 지자체 대상 확대 시행 적극 홍보

다음 달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전주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보조금24'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4월 서비스가 시작된 '보조금

24'는 여러 부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원스톱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다. 다음 달부터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 사업까지 확인·신청할 수 있다.

시는 '보조금24'의 지자체 서비스 개

시를 알리고 많은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온라인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수능 당일 교통약자 수험생 대상 '이지콜' 무료 운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이동 수단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하게 고사장에 도착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교통약자 수험생은 물론 수험생을 자녀로 둔 이지콜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주 시내권에 한해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고사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콜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과 보호자는 전화(063-271-2727)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은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한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센터 강당에서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단식을 열었다.

"백신 접종 도운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덕진예방접종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단식 열어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시민들의 신속·안전한 백신접종을 도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숙)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센터 강당에서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단식을 열었다.

지난달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마련된 이날 해단식은 12개 자원봉사단체,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 영상 시청, 단체 감사패 수여, 전주시장 격려사, 참여 봉사자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15일 덕진예방접종센터 지원을 시작한 자원봉사자들은 총 130일간, 평균 45명씩 배치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 안내 및 질서 유지 △접수 안내 및 예진표 작성 △이동약자 밀착동행 △동반아동 보호 등을 지원했다.

참여 봉사단체로는 △전주시여성자원봉사센터(회장 황정희) △바르게살기전주시협의회(회장 황인두) △은누리교통봉사대(대장 손대현) △행복한밥상푸드봉사단(회장 안영순) △전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 △완산

구해바라기봉사단(회장 황의숙) △덕진구사람의울타리봉사단(회장 이성희) △뷰티플러스(회장 진미영) △전주시새마을부녀회(회장 강영이) △원불교전북지회공회(회장 안현숙) △행복드림공동체(회장 문성현) △한일장신대학교 간호학과 등으로, 누적인원 총 3145명이 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석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예방접종센터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됐다"면서 "신속·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애써주신 의료진과 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